

완도군,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전략 모색 세미나

완도군과 전남도는 최근 완도생 활문화센터에서 국립해양수산물 박물관 건립 전략을 마련하고 박물관 활성화 등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국내 박물관 관련 전문가, 공무원, 국립해양수산물 박물관 건립에 관심이 있는 군민 등 250여 명이 참여했다.

세미나는 먼저 국립해양박물관 백승욱 전문위원의 '장보고 대사의 역사성 재조명 등 국립해양수산물 박물관의 운영 방향과 전략'을 시작으로 해양수산부 이형기 학예연구관의 '국내 국립박물관의 역할과 기능', 한국박물관학회 윤태석 이사장의 '최근 박물관 동향과 국립해양수산물 박물관 건립 방향', 국립민속박물관 김정일 학예연구사의 '수산업 발전을 통해 살펴보는 국립해양수산물 박물관 전시 콘텐츠'라는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백승욱 전문위원은 "해상왕 장보고는 글로벌한 안목의 소유자이며 세계적 반열의 인물로 그가 가진 소프트 파워적 리더십이 인심을 움직이게 했다"면서 "박물관에 장보고의 역사성을 재조명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 세계적인 해양박물관으로 건립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형기 연구관은 "국립해양수산물 박물관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해 전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국내외 수산 관련 문화를 전파하고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태석 이사는 "해양수산부 차원의 해양수산물, 문화 정책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김정일 학예연구사는 "어로 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어구와 사진, 영상 등을 전시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박나영 기자



완도군과 전남도는 최근 완도생활문화센터에서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전략을 마련하고 박물관 활성화 등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완도군 제공

장흥, 국비예산 확보 컨설팅

장흥군이 2024년 정부예산 확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고건의사업 컨설팅'을 개최했다.

최근 열린 컨설팅은 전남도 이선호 국고담당장과 강남중 주무관이 사업 추진 담당자들을 만나 진행됐다.

국고건의사업 사전절차와 대응 방법에 대한 개별 컨설팅을 마친 후, 중요사업장 방문을 실시했다.

장흥군은 2024년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최근까지 5차에 걸친 보고회를 갖고 총 24건 3천893억원의 국고건의사업을 세웠다.

건의사업에는 전통 고기와 역사 계승국립기와 박물관 건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국립 전남호국원 조성, 해양스포츠 훈련원 유치 등이 포함됐다.

군은 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꼼꼼히 검토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를 개발하는 등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춰 중앙부처, 국회에 국비사업의 건의할 방침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역에 필요한 국비사업을 반드시 유치해 군민 소득 향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근 기자

고흥, 군민 향한 '무한 친절 브랜드' 시동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감동을 제공하기 위해 민원행정 친절브랜드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섰다.

군에 따르면 군민을 위한 능동·적극적 민원행정 서비스의 기준과 방향을 마련하고, 민원행정서비스를 신속·공정·적법한 처리로 민원만족도 향상과 고흥군 친절브랜드 정착을 위해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4개 분야 19개 시책을 자체 발굴해, 관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고흥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더 낮은 자세의 '섬김'과 더 깊은 '배려'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민원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불편을 초래하는 위험·부당한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친절을 고흥의 대표 브랜드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민원

담당 공직자의 역량 강화 ▲조상 찾기기 등 군민 재산·생활민원에 대한 능동적 서비스 지원 ▲군민에게 다가서는 적극 행정 서비스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민원행정 노력 등이며, 군은 올해 8억여 원을 투입해 따뜻하고 포용적인 민원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상촬영과 녹음이 가능한 '웨어러블 캠' 제공과 마음을 다스리는 힐링 프로그램 등도 함께 추진해 민원담당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흥군 소속 모든 공직자의 친절 마인드 제고를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에서 꼭 필요한 민원응대 친절교육 아카데미를 연 2회 이상 추진하는 등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응대 역량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민석 기자

보성군, 인공지능으로 한우 질병 관리

보성군은 3월 10일까지 '2023년 소 질병 조기발견장비 지원사업'을 신청받겠다고 밝혔다.

신청 농가에는 신체정보탐지기 10대와 수신기 1대를 지원하며, 구입비의 50%를 보존해 준다. 농가당 지원범위는 최대 234만 5천 원이다. 신청 대상은 보성군에 주소를 둔 축산농가로서 △암소 20마리 이상 사육 농가 △2년 이내에 소 설사병

질병 검사 의뢰 농가 △구제역 예방 집중으로 유사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연 종부가 의심되는 9개월 이상 수소 사육 농가 △가축사육업 또는 쇠고기이력제 미등록 농가 △농장 입구 차량 소독기 미설치 농가는 사업지원에서 제외된다.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천여만 원이 투입되는 '소 질병

조기발견장비 지원사업'은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0억여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월 10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누리집 공지사항란에서 안내 글을 확인하면 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해남군 현산남초등 동문들 고흥사랑 기부 선순환 동참

해남 현산면에 소재한 현산남초등학교 동문들의 잇따른 고흥사랑 기부제 참여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세왕섭유 최재락 대표가 고흥 해남군에 500만 원을 기탁했다.

최 회장은 현산면 구산마을이 고흥으로, 지난 1994년 세왕섭유를 설립, 경기 포천·안산지역 자사 공장 및 협력업체를 통해 Target, JCPenny 등 유수의 글로벌 브랜드에 납품하고 있으며 한국 섬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돼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로 개교 74주년을 맞이하는 해남 현산남초등학교는 지난 11일 서울 곤자가컨벤션에서 총동문회를 열고, 최재락 회장이 고흥사랑기부제 기부행사를 가졌다. /박종욱 기자

진도군, 상·하수도 등 공공 요금 동결

진도군이 물가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 요금을 동결한다.

군에 따르면 최근 진도군 물가대책 위원회를 개최하고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해 상반기까지 동결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20개소를 추가로 지정한다.

특히 군은 ▲아리랑 상품권 모바일 10% 상시 할인 ▲소상공인 용자금 이차보전 ▲지난해 대비 10% 이상 물 절약 세대에 절감량 100% 감면 ▲물가안정 캠페인 동참 릴레이 이벤트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현일 기자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따른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합리적인 소비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분기별 물가대책 위원회와 수시로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현일 기자

모시잎송편 **백합** **영광 굴비**

만나서 영광입니다!

밥도둑으로 유명한 영광굴비부터 바다와 해풍이 만나 탄생한 천일염까지!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

영광 꽃게 **천일염** **영광 딸기**